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jhlee8604@kmi.re.kr

## Contents

### ● 국제물류 통계

- '22년 글로벌 5대 물류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

### ● 미주 물류시장 동향

- LA-LB항, 인력 부족으로 터미널 폐쇄

###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러-우크라 사태 지속으로 중앙아 물류센터 수요 증가

### ●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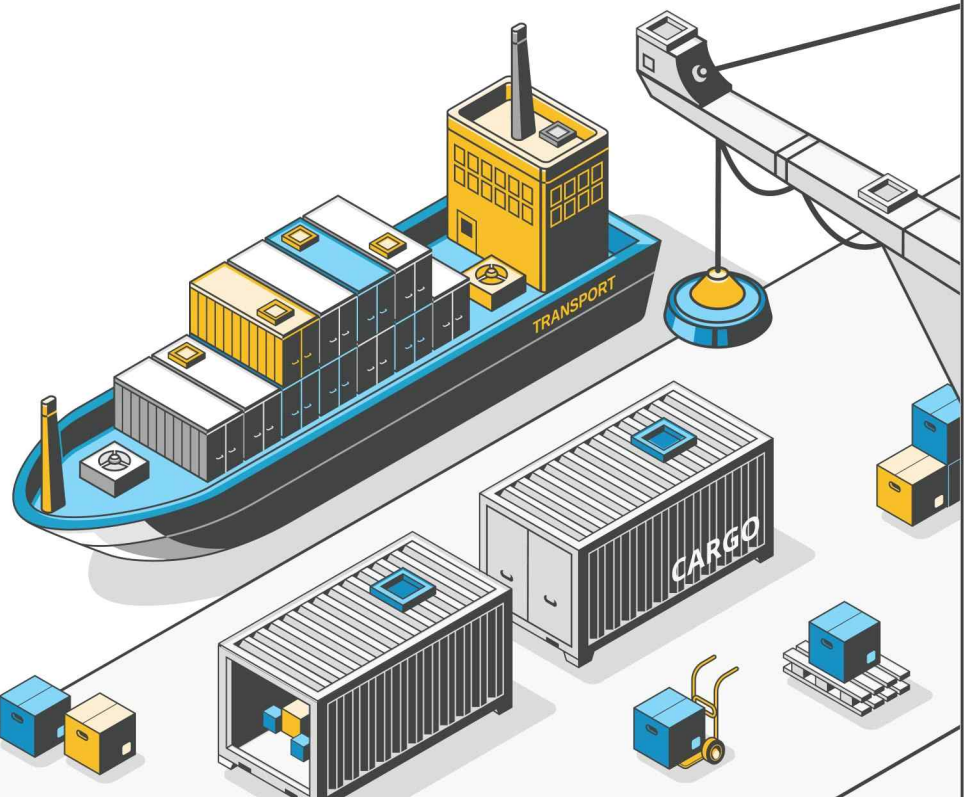
- 부활절 초콜릿과 물류

### ● 글로벌 ESG 심층분석

- 생물다양성 리스크 확산과 대응방안

### ● 공지사항

- 2023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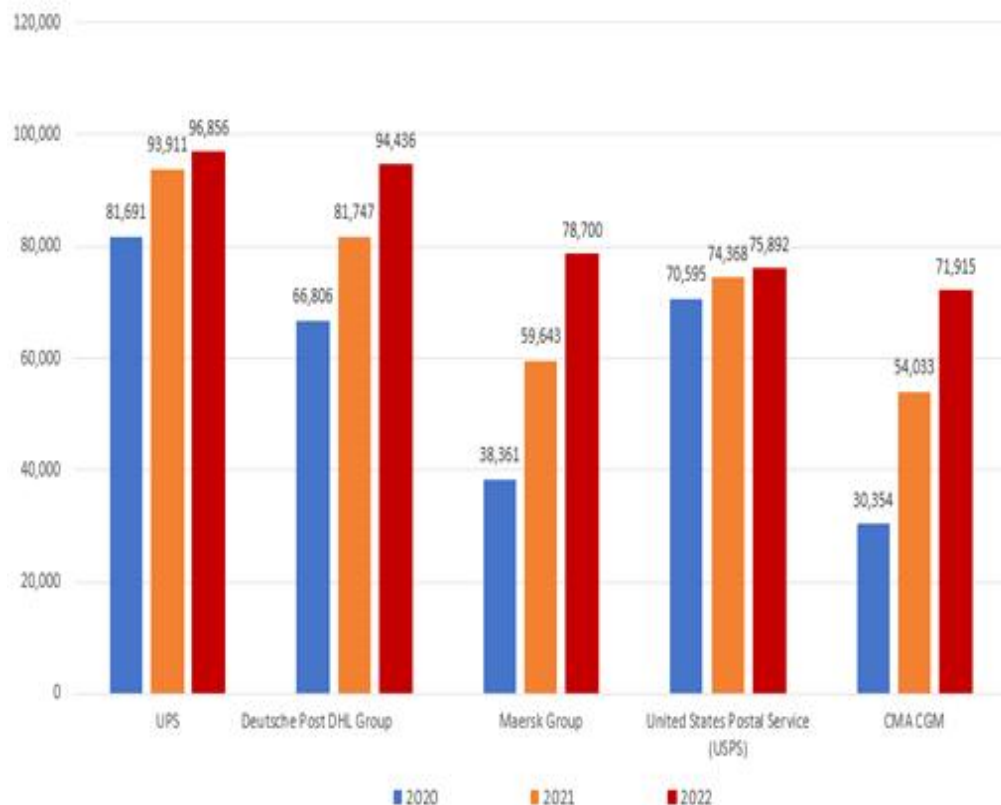
## '22년 글로벌 5대 물류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

▶ 지난해 글로벌 5대 물류기업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9% 증가해 2021년 26.4% 증가 폭 대비 약 43.6% 감소함

- 매출액 기준 2022년 글로벌 물류기업 1위는 미국의 UPS(United Parcel Service)로 약 968억 5,600만 유로를 기록해 2021년(939억 1,100만 유로) 대비 약 3.14% 성장했으나, 전년 대비 약 15% 성장한 2021년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침
- 다음으로 독일의 DHL 그룹은 2022년 매출액 약 944억 3,600만 유로로 2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대비 약 15.5% 성장했으나, 전년 대비 약 22.4% 성장한 2021년 성장률에 역시 못 미침
- 덴마크의 Maersk 그룹은 2022년 매출액 약 787억 유로로 3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대비 약 32% 성장했으나, 전년 대비 약 55.5% 성장한 2021년 성장률에는 못 미침
- 이는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연 수요가 2021년 폭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글로벌 5대 물류기업 매출액(2020년-2022년)

(단위 :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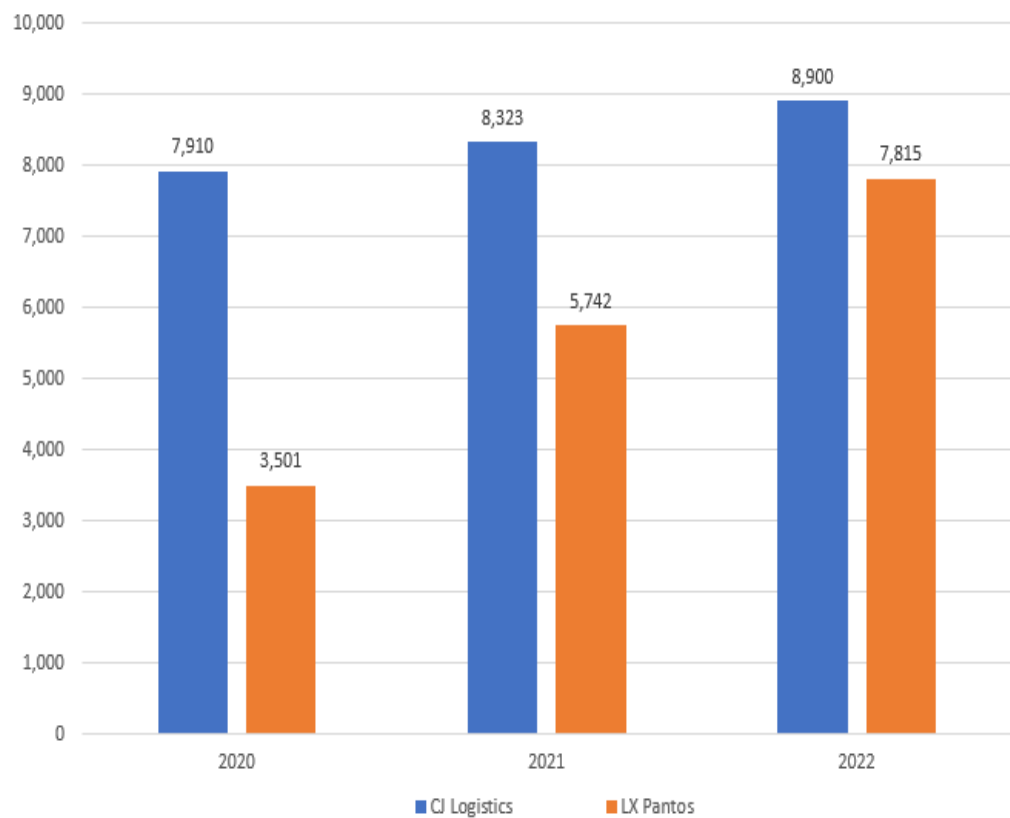


자료 : www.gscintell.com(검색일 : 2023.4.11.)

- ▶ 한편, 국내 2대 글로벌 물류기업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18.8% 증가했으며 2021년 23.3% 증가 폭 대비 감소하긴 했으나 글로벌 5대 물류기업 대비 변동 폭이 적음
  - 먼저, CJ대한통운의 경우 2022년 매출액 89억 유로로 글로벌 15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6.9% 증가했는데, 이는 약 5.2% 증가한 2021년 성장률보다 오히려 높음
  - 다음으로 LX판토스는 2022년 매출액 약 78억 1,500만 유로로 글로벌 16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36.1% 증가했으나, 64% 증가한 2021년 성장률보다 상당히 감소함

국내 2대 글로벌 물류기업 매출액(2020년-2022년)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www.gscintell.com(검색일 : 2023.4.11.)

참고자료 : www.gscintell.com(검색일 : 2023.4.11.)

## LA-LB항, 인력 부족으로 터미널 폐쇄

- ▶ 하역작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및 롱비치 항만의 터미널이 6일 목요일 저녁 폐쇄됨
  - 롱비치항 마리오 코데로 전무이사는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 중 4개가 하루 종일 중단되었다고 언급함
- ▶ 일부 물류업체는 부활절 주말을 앞두고 고객들의 납기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함

### 2012년 노조파업 기간 동안의 LA 터미널 전경



자료 : [www.supplychaindive.com](http://www.supplychaindive.com)(검색일 : 2023.4.11.)

- ▶ 태평양 해사 협회(PMA·Pacific Maritime Association)는 두 항만의 노조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전함
- ▶ 22,000명의 부두 노동자를 대표하는 미서부항만노조(ILWU·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와 PMA는 11개월 동안 노동협상을 진행 중임

- 미국에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인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 항만은 작년 가을부터 전국 순위에서 하락세를 타고 있음
  - 서부항만인 롱비치 및 로스앤젤레스항만이 하락세를 타면서, 동부항만인 뉴욕 및 뉴저지 항만 등의 물동량이 증가함
- 노조파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은 물류 공급망에 큰 차질을 초래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또다른 물류 대란을 야기할 우려가 나옴



## 러-우크라 사태 지속으로 중앙아 물류센터 수요 증가

- ▶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가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수출입 화물이 중앙아시아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중앙아 국가 내 병목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 지난 2월 EU는 러시아에 대한 10번째 경제제재 조치를 채택하는 등 러시아의 수출입 루트 회복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지난해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를 활용한 수출입 루트가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는 중앙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우회 루트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실적을 기록함
  -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외에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를 통해 우회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들의 열악한 인프라로 병목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 중앙아시아 주요국 대부분은 물류센터 등 인프라 부족으로 러시아행 수출입 화물의 보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러-우크라 사태 이후 러시아 물류 및 화주기업은 경제제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을 대상으로 물류센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중앙아 국가 내 창고 수요가 크게 증가함
  -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중앙아 국가 내 물류센터 수요는 러-우크라 사태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 약 40만㎡ 이상의 창고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함

### 카자흐스탄 물류센터 내 러시아행 화물 보관



자료 : <https://eurasianet.org>(검색일 : 2023.4.11.)

- 러시아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자국 내 적합한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및 건설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함
  -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등 중앙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물류센터 증설을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 내 적합한 물류센터 부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러시아 물류기업은 알마티 인근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을 대상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는 등 보관 공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 국가 내 물류인프라 건설 및 운영 관련 전문인력 부재와 신규 인프라 건설을 위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를 경유해 러시아로 향하는 화물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중앙아 국가 내 물류센터 공급 부족 문제 또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부활절 초콜릿과 물류

- ▶ 부활절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서양 국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곧 초콜릿을 의미함

- 초콜릿 달걀의 기원은 19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후 대륙 전역의 부활절 축제의 필수품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부활절 달걀(초콜릿) 시장만 2022년에 약 4억 7,500만 유로로 추산되며, 소비자들은 동일 무게의 초콜릿보다 달걀 모양의 상품에 68%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 부활절 초콜릿(Easter Eggs)



자료 : <https://www.maersk.com> (검색일 : 2023.4.10.)

- ▶ 초콜릿 소매업체와 제조업체가 부활절 시즌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미션으로 인식되고 있음

- 부활절 달걀은 계절상품이므로 소비자 수요가 연중 변동하고 전통적인 부활절 3일 기간이 끝나면 판매가 급감하기 때문임
- 부활절 시즌이 다가오면 소매업체는 주문 수량과 빈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 제조업체는 소싱 및 운송 문제를 극복해야하는 난제를 겪고 있음
- 부활절 시즌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부활절 관련 제품들은 연중 생산되는 초콜릿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부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는 출시 리드 타임과 더불어 도착할 때 제품 수명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활절 초콜릿을 위한 물류 운영은 원자재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운송에도 상당한 복잡성이 존재함**

- 부활절 초콜릿은 본질적으로 상당히 깨지기 쉬우므로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관 및 운송을 안전하게 수행해야 함
- 운송 중 이러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보호 포장에 사용되지만, 이로 인해 전체 제품에 대한 비용 상승 및 추가 운송 공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 **특히 부활절 초콜릿을 위한 창고는 해당 기간에 훨씬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시즌 제품 물량의 약 70%가 부활절 일요일(Grocery Trader)이 있는 사전 3주 동안 판매되고 있어 대부분의 재고는 시즌이 시작되기 3개월 전부터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임
- 소매업체는 초기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여 재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부활절 초콜릿을 더 일찍 비축하고 있지만 해당 3주 동안 제품을 확보해 판매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 **부활절 직후 남은 초콜릿 재고에 대한 부분도 물류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

- 부활절 일요일 이후부터 부활절 초콜릿 대한 수요는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재고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았다면 과잉 재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유통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가격 할인을 통해 남은 부활절 재고를 처리하고 있지만 부활절 초콜릿은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압박이 높은 편임
- 나아가 부활절 재고가 높다는 것은 '보관 공간'을 차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업의 공급사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이는 연쇄반응의 일부로 다른 품목들이 보관될 수 없기에 소비자의 다음 수요에 대한 잠재적인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

➤ **이 모든 것은 부활절 전후로 재고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음**

-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에게 부활절은 좋은 기회의 시기이지만 물류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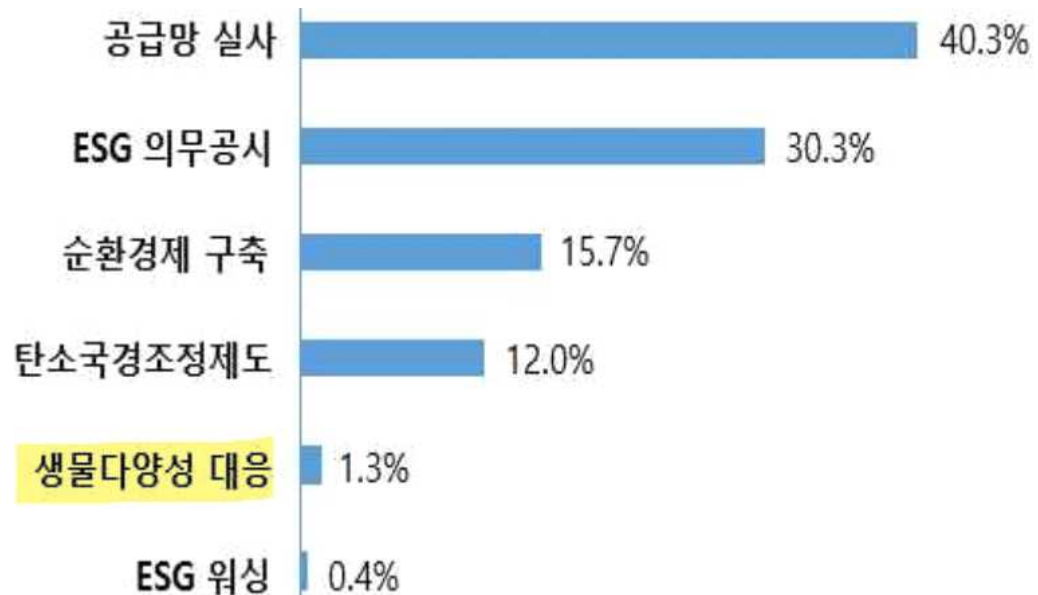
참고자료 : [www.maersk.com](http://www.maersk.com)(검색일 : 2023.4.10.)

## 생물다양성 리스크 확산과 대응방안

### ① 생물다양성 대응 관련 국내 현황과 국제사회의 노력

- ▶ 국내 기업들은 ESG 이슈 중 '생물다양성' 대응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됨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1.3%만이 '생물다양성 대응'이라고 응답

#### 국내기업이 선정한 2023년 주요 ESG 현안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 2022.2.6.

- ▶ 반면, '23.1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향후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악화되는 글로벌 리스크 중의 하나로 제시<sup>1)</sup>
  - 세계은행도 자연이 제공하는 일부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전 세계의 GDP가 2조 7천억 달러씩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sup>2)</sup>

1)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2023*, 2023.

2) World Bank Group, *The Economic Case for Nature*, 2021.7.

- UN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따르면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육상·해양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 내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

  - 인류는 의식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및 산업용 산물들을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로부터 얻어 왔고, 생물 다양성은 환경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분해해 대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적절한 기후조건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sup>3)</sup>
-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12.7.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생물다양성 버전(version)이라고 일컬어 질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

  - GBF의 핵심은 2030년까지 이미 훼손된 육상과 해양 생태계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복원시키고, 동시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이 중요한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보호 관리해야 한다는 '30×30'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는 것임

## ② 기업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 증가

-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적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며 생물다양성을 중요한 ESG 이슈로 인식하기 시작

  - 기업 차원에서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와 이에 대한 공시 및 평가가 중요한 ESG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
  - 자연이 주는 서비스는 누구나 공짜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기계나 공장처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 즉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라고 인식되기 시작
- 전 세계 545개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의 연합체인 '네이처 액션(Nature Action) 100' 이 지난 '22.12. 출범

  - 100개 핵심 기업들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게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시킬 방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해 나갈 계획임
  - 현재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촉구해 나가고 있는 '클라이밋 액션 100(CA 100+)'의 생물다양성 버전

3)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www.nibr.go.kr](http://www.nibr.go.kr)(검색일: 2023.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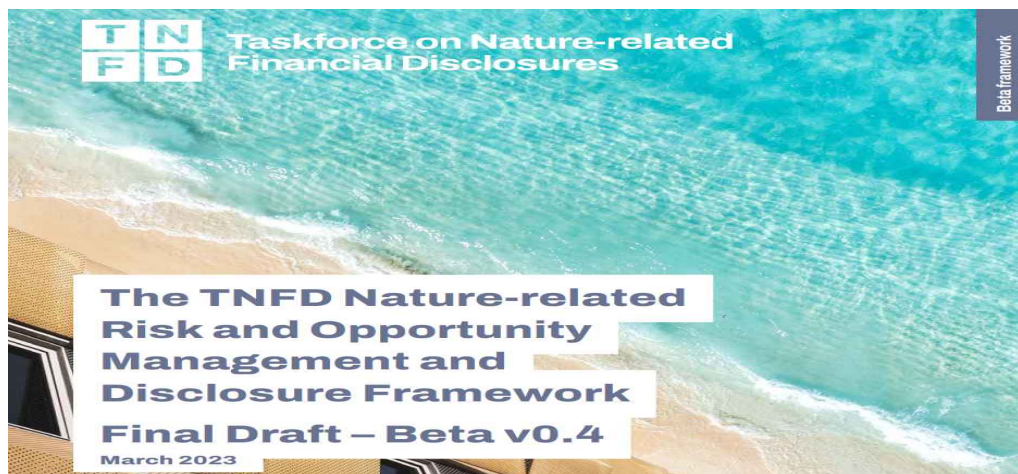
-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역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연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연자본을 기업의 지속가능한 장기적 재무가치 창출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

  - 블랙록은 투자대상 회사가 중요한 자연자본과 관련된 위험을 회사의 사업모델과 전략에 반영해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연자본 관련 리스크를 이사회가 적절히 감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대상 회사와 대화하며 관련 정보를 요구해 나갈 계획임<sup>4)</sup>
- ▶ 투자자들이 생물다양성을 자연자본으로 인식하며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생물다양성이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연과 관련된 기업공시제도도 강화

  - 현재 중요해 지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공시제도가 마련되거나 기존 글로벌 공시제도들이 개정되고 있음
- ▶ 가장 주목해야 할 생물다양성 관련 글로벌 공시기준은 UNEP(유엔환경계획), UNDP(유엔개발계획), WWF(세계자연기금) 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해 '21.6. 설립한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공시기준임

  - TNFD는 '22.3. 첫 번째 베타 버전(v0.1), 즉 시험 버전을 발표한 이후 v0.2(6월), v0.3(11월)를 발표했고, '23.3.28. 최종 베타 버전인 v0.4를 발표
  - 향후 2달 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3년 9월에 최종 TNFD 공시기준이 발표될 예정

#### 국내기업이 선정한 2023년 주요 ESG 현안



자료 : <https://framework.tnfd.global/publications>(검색일: 2023.4.11.)

4) BlackRock, *Our approach to engagement on natural capital*, 2023.

- TNFD 기준은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구조' 속에서 생물다양성과 같은 자연자본 관련 리스크들이 얼마나 잘 고려되며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 지금까지 경영활동과정에서 외생 변수로 여겨져 왔던 자연자본 이슈들이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 과정 속으로 얼마나 잘 녹아 들어가 내생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의 흐름이 자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기업 활동이 아닌 긍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흘러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TNFD는 2017년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관리 및 공시를 위해 마련된 프레임워크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자연자본' 버전
- TNFD는 자연자본 및 생물다양성 관련 글로벌 공시기준으로 인식되며 다른 글로벌 ESG 공시기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속가능성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도 TNFD 기준 등과 같은 최근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2016년 버전을 대폭 개정한 생물다양성 표준공개 초안(Biodiversity Standard exposure draft)을 '22.12에 발표하였고, '23. 2.28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 '23년 하반기 최종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
  -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도 이미 공개한 ESG 공시표준안인 IFRS S1(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 이외에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표준안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22.12.)

### ③ 기업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평가 강화

-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도 전 세계 기업들 중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들을 식별하고, 이들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와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음

  - MSCI는 생물다양성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에 물리적 자산을 둔 기업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 선별 지표(MSCI Biodiversity-Sensitive Areas Screening Metrics)'와 공급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산림파괴에 영향을 주는 기업 또는 산림파괴 관련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을 식별하기 위한 '탈산림화 선별 지표(MSCI Deforestation Screening Metrics)'를 개발해 '23년 상반기부터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임
  - ISS도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과 공급망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들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영향평가 도구(Biodiversity Impact Assessment Tool)를 개발('22.9)



-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생물다양성'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했고('22.4), 이에 따라 8개 산업분야의 400여개 글로벌 기업들(국내기업 10개사 포함)을 평가해 공개('22.12.)

- '23년에는 600여개 기업으로 평가 대상을 확장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국내 기업 24개사도 포함될 예정
- WBA의 생물다양성 평가에서는 자연(Nature)과 인간(People), 그리고 기업(Corporate) 간의 연결성(Nexus)을 강조
- 기업의 생물다양성 개선 노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과 지배구조도 함께 평가하며, E(자연), S(인간), G(기업)의 연계성 속에서 기업의 생물다양성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WBA 생물다양성 평가

평가 영역 및 가중치	평가 항목
<b>Governance &amp; Strategy</b>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 전략</li> <li>지속가능 전략에 대한 책임</li> <li>이해관계자 참여</li> <li>로비 활동</li> <li>Nature-positive(자연 손실을 막고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li> </ul>
<b>Ecosystems &amp; Biodiversity</b>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상태(자연에 미치는 영향 /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핵심 분야 / 핵심 종(Key species))</li> <li>토지 및 해양 활용 변화(생태계 전환(Ecosystem conversion) / 생태계 복원(Ecosystem restoration)</li> <li>자원의 직접적 착취(자원착취/ 토지 건강/ 취수)</li> <li>오염(수질/ 유해물질 및 폐기물/ 플라스틱 사용 및 폐기물/ 대기오염 물질/ 온실가스 배출 (scop1 및 scop2)/ 온실가스 배출(Scop3)/침습 외래종)</li> </ul>
<b>Social inclusion &amp; community impact</b> (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 한 환경에 대한 권리</li> <li>토착민의 권리</li> <li>토지권</li> <li>물 및 위생</li> </ul> <p><b>[핵심사회 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존중 (인권존중 선언/ 근로자의 인권존중 선언/ 인권 리스크 및 영향 확인/ 인권 리스크 및 영향 평가/ 인권 리스크 및 영향 통합 및 대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대화/ 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절차/ 외부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고충처리절차)</li> <li>양질의 일자리 창출(건강과 안전/ 생계급여/근로시간/집단 협상/ 직장내 다양성 공시/ 양성평등)</li> <li>윤리적 행동(개인정보보호/ 책임감 있는 납세/ 반부패 및 뇌물 금지/ 책임감 있는 로비활동)</li> </ul>

자료 : WBA Nature Benchmark Methodology (2022) 내용을 표로 정리

## '23년 WBA 생물다양성 평가 대상 글로벌 기업 (Logistics Industry 28개사)

Name	Headquarters	Name	Headquarters
A.P. Moller - Maersk	Denmark	MISC Group	Malaysia
Adani Ports & Special Economic Zone	India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Switzerland
China COSCO Shipping	China	Norden	Denmark
China Merchants Ports	Hong Kong, China	ONE	Singapore
CMA CGM	France	Pacific Basin	Hong Kong, China
DP World	United Arab Emirates	Pacific International Lines	Singapore
EUROGATE	Germany	PSA International	Singapore
Euronav	Belgium	SIPG	China
Evergreen Marine Corporation	Taiwan, China	SSA Marine	United States of America
Great Eastern Shipping	India	Teekay	Bermuda
Hapag Lloyd	Germany	U-Ming Marine Transportation Corporation	Taiwan, China
Hutchison Port	Singapore	Wan Hai Lines	Taiwan, China
Hyundai Merchant Marine	Republic of Korea	Yang Ming Marine Transport Corp	Taiwan, Chin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Philippines	ZIM Integrated Shipping Services	Israel

자료 : www.worldbenchmarkingalliance.org(검색일: 2023.4.11.)

## ④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ESG 이슈 중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ESG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에 대해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
  - 그러나 「생물다양성」과 「ESG 공급망 실사 및 공시」는 서로 다른 별개의 ESG 이슈가 아님
  - 최근 '생물다양성'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망 실사'와 '공시' 항목에서 생물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
  -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응해 나간다는 의미는 '실사' 또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통해 기업활동(공급망 포함)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파악된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이러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노력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라는 것

- 최근 10여 개월 동안의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논의는 기후변화 논의에서의 10년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ESG 경영의 핵심인 'ESG 리스크 관리 및 공시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지난 수년간 기후변화 이슈를 중심으로 이어져 오며 따라 이에 대한 기본 골격(frame)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물다양성 이슈가 급부상했기 때문
- ESG 경영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논의에 생물다양성 이슈를 포함시켜 버전업 (version-up)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생물다양성 이슈는 기후변화 이슈와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버전업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만 하고, 그 중 하나가 '생물다양성'과 '인권'의 연계성임
  - '기후변화' 이슈도 인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물다양성 이슈는 그러한 관련성이 더욱 큼
  - WBA의 생물다양성 평가에서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측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최근 생물다양성 관련 글로벌 공시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TNFD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음<sup>5)</sup>
- 기후변화 및 인권 이슈를 포함한 통합적 '생물다양성' 정책마련 필요
  -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와 함께 환경(E)을 구성하는 양대 축으로 상호간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음
  - 또한 '생물다양성'은 사회(S)의 핵심인 '인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따라서 현재 기업에 마련되어 있는 또는 마련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와 '인권 실사 체계'의 외연을 확장해 생물다양성 이슈를 이러한 체계(G)속으로 포섭 시켜야 함
  - 이렇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이슈가 기후변화 및 인권 이슈와 상호 융합 되어 운영될 수 있는 ESG 경영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2023*, 2023.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 2022.2.6.

World Bank Group, *The Economic Case for Nature*, 2021.7.

BlackRock, *Our approach to engagement on natural capital*, 2023.

TNFD, *Societal dimensions of nature-related risk management and disclosure: Considerations for the TNFD framework*, 2022.11.

www.nibr.go.kr, <https://framework.tnfd.global/publications> (검색일: 2023.4.11.)

www.worldbenchmarkingalliance.org(검색일: 2023.4.11.)

신석훈 김앤장 위원

02-3703-4742, seukhun.shin@kimchang.com

5) TNFD, *Societal dimensions of nature-related risk management and disclosure: Considerations for the TNFD framework*, 2022.11.

## 2023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2023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OVERSEAS LOGISTICS MARKET  
DEVELOPMENT SUPPORT PROJECT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3.27 (월) 09:00 ~  
4.24 (월) 18:00까지

##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탈(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 대상사업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대상 사업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비용 지원 ① 인수합병형(현지기업 M&A 및 지분투자) ② 시설투자형(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수행 대상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관
지원 금액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T 051-797-4770 E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전문연구원  
T 051-797-4913 E kdong@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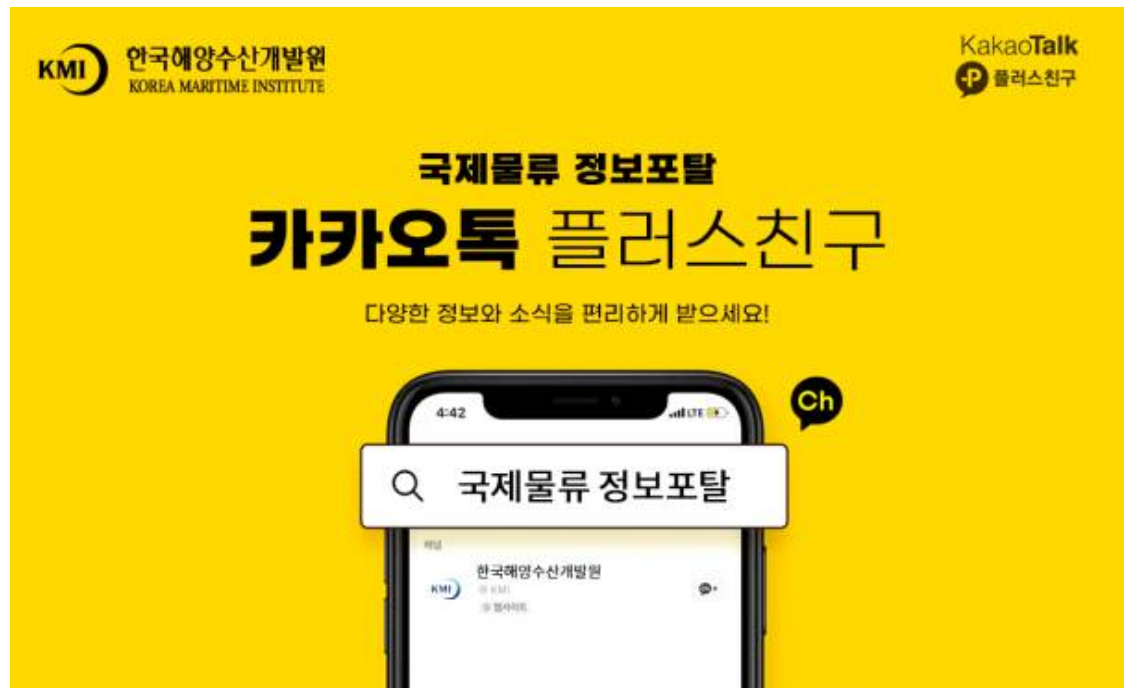
##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사업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 내 물류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수행 대상	물류기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지원 금액	· 물류기업 단독 수행 :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2023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https://youtu.be/OfMtckT0JJI)을 통해 실시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